주요 병해충 방제요령

◈ 갈색날개매미충 · 미국선녀벌레 · 꽃매미 (예보)

○ 월동난 조사 결과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발생면적이 확인됨. 7월 이후 성충으로 우화함.

▶갈색날개매미충
- 5월 초중순에 부화하여 약충이 되고, 7월 이후 성충으로 우화함.
-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월동난 부화 후 1~2주 사이에 약제를 뿌리는 것이 좋음.
- 발생 정도에 따라 전용 약제를 1주일 간격으로 1~3회 살포하는 것이 좋음.

▶미국선녀벌레
- 연간 1세대 발생, 5월 중하순경에 부화하며, 7월 이후 성충으로 우화하여 10월까지 발생함.
- 기주범위가 넓으므로 농경지 뿐만 아니라 주위 야산의 나무들도 동시에 방제해야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음.
- 천적인 선녀벌레집게벌을 이용하여 장기적인 밀도 억제가 가능함.

▶꽃매미
- 5월 상중순 경에 부화하여 7월 성충 우화 이후, 11월까지 발생함.
- 포도, 사과, 배, 복숭아, 매실, 가죽나무 등을 가해하나, 포도속(머루, 포도) 등을 특이적으로 선호함.
- 시설재배지는 측창과 입구에 방충망을 설치하면 꽃매미의 침입과 외부로의 확산을 막고, 방제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음.



[갈색날개매미충 성충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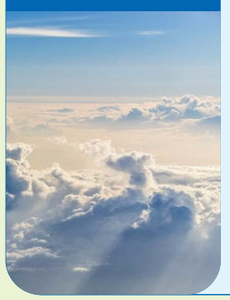


[미국선녀벌레 성충]



[꽃매미 성충]

7월 기상전망
(강원지방기상청)



기온은 **(영서)(영동)** 1, 2, 3, 4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.
강수량은 **(영서)** 1주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고, 2주는 평년보다 많겠습니다. 3주, 4주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**(영동)** 1주, 2주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겠으며, 3주, 4주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

지역	주	1주 (06.29. ~ 07.05.)	2주 (07.06. ~ 07.12.)	3주 (07.13. ~ 07.19.)	4주 (07.20. ~ 07.26.)
영서	평균기온	평년(22.0~23.0℃)보다 높음	평년(22.1~23.3℃)보다 높음	평년(22.5~23.9℃)보다 높음	평년(23.5~25.1℃)보다 높음
	강 수 량	평년(36.0~93.2mm)과 비슷하거나 많음	평년(28.3~80.2mm)보다 많음	평년(51.2~96.0mm)과 비슷함	평년(22.6~95.6mm)과 비슷함
영동	평균기온	평년(21.1~22.7℃)보다 높음	평년(20.9~22.9℃)보다 높음	평년(21.8~24.0℃)보다 높음	평년(23.0~25.4℃)보다 높음
	강 수 량	평년(26.4~91.7mm)과 비슷하거나 많음	평년(32.3~62.3mm)과 비슷하거나 많음	평년(21.0~82.9mm)과 비슷함	평년(18.2~37.4mm)과 비슷함

※ 날씨 예보는 전화 131번(http://gangwon.kma.go.kr)

'내 손에 병해충' 앱 다운로드
강원도 주요 농작물 병해충 증상, 방제방법

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
2026년 7월 7일 발표

2026 7월호

「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」

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– 이 정보는 http://www.ares.gangwon.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–

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**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**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농업인께서는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, 관계기관 · 단체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중점 방제대상 병해충

식량작물 병해충

- **감자역병(고랭지씨감자) :** 다습한 조건에 발생이 많아, 대관령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할 때, 장마기간 이후 발생 가능성이 높음.
- **벼멸구 · 흰등멸구 · 혹명나방 :** 장마기간 이후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포장에 피해 잎이 보이면 적용약제로 방제 실시해야 함.

채소 병해충

- **반쪽시들음병(여름배추) :** 강릉, 태백과 같은 여름배추 재배 지역에서 발생이 우려됨. 장마가 끝난 후 기온이 상승할 때 발생이 많아짐.
- **담배나방 · 파밤나방(고추) :** 관찰포 조사결과 강원에서는 전년대비 피해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함.
- **배추좀나방(여름배추) :** 배춧잎에 굴을 파고 들어가 갉아먹어 엽맥만 남기며, 다양한 계통의 살충제에 내성을 갖고 있어 방제가 쉽지 않음.

과수 병해충

- **화상병 · 과수가지검은마름병(사과, 배) :** 잎자루와 잎맥을 타고 흑갈색이나 검게 변하는 듯한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증상이 보일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할 것.
- **과수 돌발해충 :** 월동난 발생 면적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천적곤충이나, 시설 방충망 등을 활용하여 방제해야 함.

"농약안전허용기준을 잘 지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합시다"

– 잔류허용기준이 강화(PLS시행)되어 **작목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금지됩니다.** –

주요 병해충 방제요점

식량작물 병해충 방제

◈ 감자역병(고랭지씨감자) (예보)

○ 서늘한 온도(10~24℃)와 다습한 조건에서 발생함. 대관령 등 주요 씨감자 재배지의 최근 기상 조건을 고려할 때, 장마기(7월 상순~) 이후 감자역병의 발생 우려가 높음.
○ 보호용 살균제(만코제브 등)를 살포하여 발생을 예방하고, 만일 발생하였다면 치료용 살균제(메타락실, 디메토모르프 등)를 살포함.
○ 지속적인 비 예보가 있으면 줄기와 잎이 살아 있는 동안에 살균제를 처리함.


[감자역병 괴경]

◈ 벼멸구 · 흰등멸구 · 혹명나방(벼) (예보)

○ **(벼멸구 · 흰등멸구)** 장마기 남서풍을 타고 비래하는 해충으로, 초기방제가 중요하므로 볏대 아래쪽을 잘 살펴보아 발생이 많으면 적용약제로 방제함.
○ **(혹명나방)**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논을 살펴보아 포장에 피해잎이 1~2개 정도 보일 때, 방제를 실시해야 함.
☞막대기로 벼 포기를 쳐서 나방이 나는 모습을 보거나 유충 피해인 벼 잎이 세로로 말리는 증상이 보이면 방제함.

채소 병해충 방제

◈ 반쪽시들음병(여름배추) (예보)

○ 강원 평창군에서 봄, 초여름 작형 배추에서 반쪽시들음병 발생이 증가하여, 여름배추를 재배하는 강릉, 태백 등에도 발생이 우려됨.
○ 토양을 통해 전파되는 곰팡이병으로 장마가 끝난 후 기온이 상승하여 고온다습한 시기에 발생함. 배추 지제부 쪽부터 탈색되어 줄기와 물관을 따라 병징이 확대되며, 이파리가 누렇게 시들어 죽게됨.
☞배추 연작을 피하고, 비기주작물로 돌려짓기를 권고함.
☞작년 피해가 심했던 밭은 배추 정식 전 토양훈증제를 먼저 처리하고 미생물퇴비를 처리하면 효과가 증대됨.
–기주작물 : 배추, 감자, 무, 양배추, 가지, 토마토, 수박, 콩 등
–비기주작물 : 당근, 옥수수, 산마늘, 셀러리, 더덕, 눈개승마


[반쪽시들음병 증상]


[반쪽시들음병 피해포장]

주요 병해충 방제요점

◈ 담배나방 · 파밤나방(고추) (예보)

○ 고추 관찰포 조사결과 강원도의 피해과율이 전년대비 증가하는 추세로 주의가 필요함.
○ **담배나방**은 해마다 고추에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주로 장마가 끝나고, 기온이 높아지면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.
☞담배나방 등 나방류 유충은 3령 이상 자라면 약제저항성이 커져서 방제 효과가 떨어지므로 새 잎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알이나 유충을 발견하는 즉시 등록 약제로 방제함.


[담배나방 피해 고추]


[담배나방 유충]

◈ 배추좀나방(여름배추) (예보)

○ 주로 유충이 피해를 주며, 이파리 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갉아먹어 흰색 표피만 남김. 피해가 심하면 엽맥만 남기며, 잎 전체를 먹어치우기도 함.
☞고랭지지역에서는 평야지보다 늦은 8월 하순~9월 상순에 발생최성기를 보임. 생육기간이 짧고 다양한 계통의 살충제에 저항성을 갖고 있어 방제가 어려우므로 계통이 다른 농약을 교대로 사용해야 효과가 좋음.

과수 병해충 방제

◈ 과수화상병(사과, 배) (경보) · 과수가지검은마름병 (주의보)

○ 사과, 배나무의 꽃, 잎, 열매, 가지가 불에 탄 것과 같이 검게 변하고 말라죽는데, 감염 초기에는 잎자루와 잎맥을 따라 검게 변하는 병징을 보임.
○ 한번 걸리면 방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업복 및 작업도구를 철저히 소독하고 농작업자 관리가 필요함.
○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함.


[과수화상병 병징(배)]


[과수화상병 병징(사과)]


[과수화상병 병징]